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34호

서기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부처는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당부하셨고, 진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아둬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대신 밥 먹어 주고, 옷 누어주고 잠 자주고 대신 죽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다녀도 지구라는 한곳에서, 우리는 미생물도 버리지 않고 주변에서 복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짐작되시죠. 그렇게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공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식은 만법을 들고 내는데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 갔는고' 하고 옛날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어디 있는가를, 정말 만법을 들고 내는, 법을 굴리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씬씀이에 달려 있겠지요. 잘못 된 것 잘못되는 것대로 참회해 거기다 놔 버리고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굴려야 이것이 올바르게 굴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트머리에 가서는 반드시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닌 이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면 정말 시체말로 '왔다'입니다. 성불만이 아니라 견성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 것

지금 생활에도 좋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훨훨 털고 갈 것이고, 살아서 훨훨 털지 못하면 죽어서도 훨훨 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죽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동적인 컴퓨터에서는 과거로부터 수 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거기에 입력해서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또 요 다음에 죽어서 다시 나와도 그걸 짊어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걸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다 다시 놔야 그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에 다른 걸 입력시켜야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지 다른 내용을 넣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둘이 아닌 도리로 마음 쓸때 견성성불도 포함돼 돌아가

그런데 그 이하로 개개인들이 모두 탄생되어서 생산체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셋벌을 받고 정자 난자를 받아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 인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까닭은 생명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주머니에 사는 생명

그래서 몸을 가만히 보세요. 지구의 공기주머니나 내 모습의 공기주머니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를 리가 없다는 것을요. 많은 생명체들 중에 하나 단 바깥으로 뛰어나와도 죽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한 주머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공체라고 하는 것은, 공체라는 것은 우주가 달리 있고 지구가 달리 있고 우리 사는 게 달리 있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다 같이입니다. 더불어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도리의 씬씀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성금을 가져 왔다 합시다. 그런데 그 돈을 저기다 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른 데다 썼습니다. 이런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근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런 내 탓이죠.

하나에서 열, 백까지 전부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도 없이, 사람도 없는데 뭘 그냥 갖다 놔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갖다 놓은 사람이 알고 있고,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알고 우주간 법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동하게 남을 고달프게 하면서 불사한다고 하는 것도 위법이죠.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서, 단돈 얼마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보시 할 때에 비로소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공체로서 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주와 더불어 공생이면서 동심입니다. 그리고 공체입니다. 공응을

도 이름이지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너는 이 다음에 석가가 되거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을 하신 분도 그 분이요 그 말을 듣는 분도 그 분이요. 화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무슨다든 계율이 250개건 300개건 간에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지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낱알이 계율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뭇 대의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아래 분들을 돌아가시고 그래서 영가들이 많습니까. 산 분이 50%라면 영령들이 50%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 고달픔에 힘들고, 영령들이 몰라서 고달프니까 힘들며, 자기가 모르는 탓으로 영령들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공부하고 모든 것을 거기가 일임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냥 공응이 되죠. 그러나 영령들도 그렇고 조상들도 그렇고, 조상이 영령이죠. 그 영령들께서도 그렇고 꼭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살려면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인과성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문제 등등 여러분께서 꼭 받고야 마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오신통이다 하면, 오신통을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게 되면 누진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 이런 소립니다. 이것 잘 계산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고달픈지?

그리고 오늘 점안식을 했는데 형식으로 점안식하고 이런다면은 말도 안되죠. 세상을 딱 썰어서 그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점안식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반면에 우리가 조상들도 한꺼번에 거기 넣으면 한 도량에 공심이 되고 공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령들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잔잔해지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잔잔해지고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저기 불사사가 나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하든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하든가 하죠. 그럼 그냥 가죠. 근데 그게 이튿날이나 몇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됐다고 전화가 와요. 그 도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높은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법당에 이렇게 오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고, 부처님의 생활, 모든 게 나하고 동일하니까 예배를 올릴 때 진짜로 한군데에다가 올리되, 한 군데에다 동글러서 올리게 되면 전체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전체도 포함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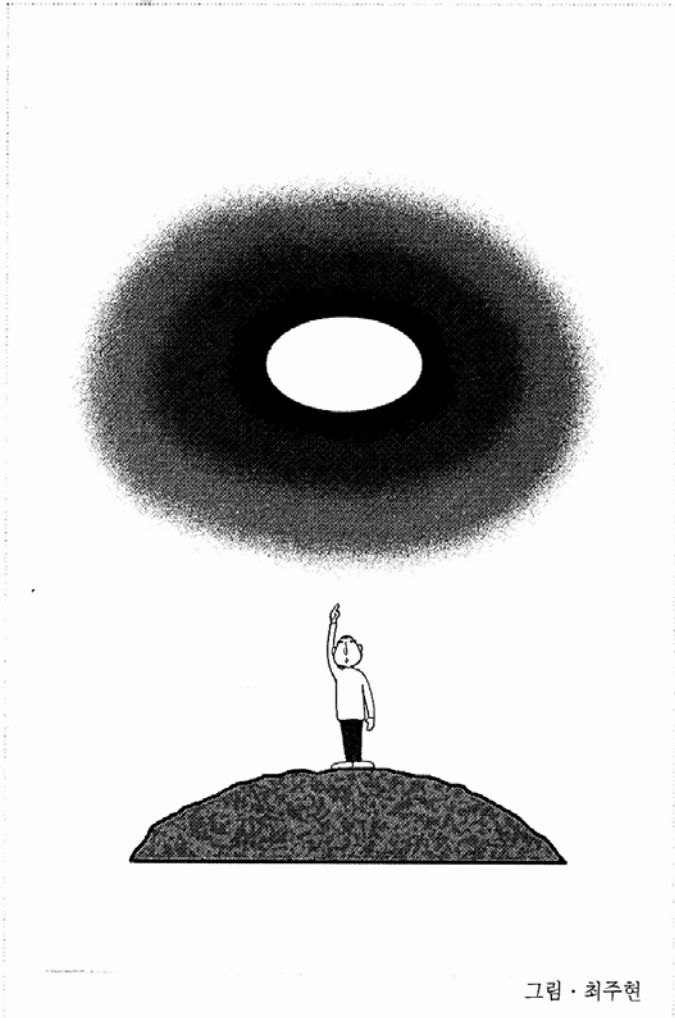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배를 올리고, 삼배를 올리든지 바쁘면 일배를 올리든지 하고 자기한테다가 또 다시금 입입해서 놓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두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

말만 이렇게 하고 그 말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런 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진짜로 하는 게 아닌 그냥 모습만 보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렇게 법당에 앉아 계시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수없이 뛰어든 뿔 사이 없이 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힘이 없이 하시구요. 여러분한테 제가 종종 말을 했죠. 힘이 없이 하시는 거다. 우리 모두가 공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하고, 애 아무게야 하고 부모님이 부르면 또 자식 노릇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잘 들어서서 진정코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야 모두 고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식별하고 출가를 하지만 머리를 깎는 것도 방편입니다. 웃 입는 것

도 방편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따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한 분은 웃이 없든 있든, 여자든 남자든 둘이 아닙니다. 참나찰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찢쩍 매고 그 애를 쓰고 그러죠. 권선문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하죠. 근데 그것이 신도들한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그런가 싶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내고, 일년이 걸리든 백년 걸리든 천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짓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닌데도 뭐,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구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급해서 저거하면 답박해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생각이라면 느리고 빠르기가 없구나 하는 거. 사람이 살 때 안 된다. 된다 하는 이유가 불지 않습니까? 이 뜻을 아십니까? 어렵더라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자꾸 해 가신다면 정말 성불 아닌 성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힘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없는데 뭐가 터질 게 있고, 내가 없는데 뭐가 불을 게 있고, 내가 없는데 뭐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

아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나가실 수 있다면, 열어죽을 일이 생긴다해도 드뭇하게 해 줄 것이고 또 더워서 죽는다고 하면 시원하게 해 줄 것이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 보살님 (어느 보살님을 가르키시며),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려 있거든요. 암이다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려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암뿐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없던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업보로 자기가 그만한 걸 받게 돼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장파장으로 무효를 시키느냐. 이게 놓지 않으면 안되죠. 그거를 아시고 병원을 그만 두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냥 살고 계시네요. 근데 이것이 편안하고 좋지 않아요? 자식을 고생 안 시키고 나고 고생 안 하면 주변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또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또 돈 고생 안 하게 해 줄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모두가 쉰한 존재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도 법당으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모습이 불품 없는데 뭘 너를 보고 저렇게 하겠느냐, 그러고는 무심코 혼잣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해도 안되지만 때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요새 다리를 또 좀 빼어서 잘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있나? 네가 사는 게 있고 네가 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네가 사는 게 있고 네가 하는 게 있고 네가 먹는 게 있고 네가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껌껌 웃고 그냥 들어 왔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주의 모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지, 내가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 보고 듣는다는 거. 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과학이다 이러지만 그건 물질과학이기 때문에 진짜 과학이 못 됩니다. 이진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 돌아가게끔 벌써 이 머리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이 아니게 같이 불어서 돌아가는 거. 근데 사람이 모두 자기가 살았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망했다, 자기가 흥했다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커지죠.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관하는 거. 내가 예전에 그랬죠. 종 문서를 없애려고 종문서를 맡기는데 맡겨도 그냥 털썩 밀고 맡기는 게 아니라 못 밀어서 찢다 뺐었다 찢다 뺐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문서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말을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우리는 모두가 공심이요. 또 공체다. 공응을 하고 산다. 공식이요. 이 공식은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해 나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들고 내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만물이 일분이요, 일분이 만물이라, 만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분이 따로 있지 않고 말하자면 일분도 공해서 일분이라고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위를 남용,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아문

